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자격증 소지가 수업 만족도 및 취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

오 석 태[†]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A Study Having the Certifications Students of Majoring in Culinary Arts on the Satisfaction of Class and Preparation for Employment

Suk-Tae Oh[†]

Dept. of Culinary Arts, Wooso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university students who majored in culinary arts. The effects of students' certifications on clas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their effects on preparation employment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with the certifications ha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class satisfaction, but they also had high stress in the school life. In other words, it seemed that the stress was increased in parallel with the school life in obtaining the certificate. In the case of qualification for preparation employment, the certification affects the preparation for employment even for the culinary arts majors. As for the number of certificates and passions, the change was found from 3 certifications, lower in 4, but again in 5.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ertification initially increases enthusiasm, but when it reaches a certain level, it reaches its limit and it rises again after passing the interval. Also, students who graduated from cooking related high school showed high passion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Keywords: certification, culinary arts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practical class, school life

I. 서 론

2016년도 6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10.3%를 기록하면서 역대 청년 실업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취업자 수는 2,655만 9천명으로 2015년도 같은 달 대비해서 35만 4천명이 증가해서 고용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청년들의 실업률은 9.7%대에서 10.3%대로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에 국가적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 5년간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1년 8.5%, 2012년 8.3%, 2013년 9.1%, 2014년 10.9%, 2015년 11.1%로 두 자리 수가 2년 연속 지속되면서 48만 4천명의 청년 실업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미취업 상태에 있다(Kim, 2015).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는 2017년도의 고용정책의 우선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를 내걸고 있으며, 취업난 해소에 들어갈 예산으로 2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더욱이 2015년

도 졸업생이 68만 5,000명으로 국내 고용시장의 위축과 함께 청년실업률은 2017년도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학에서 충분한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하였거나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여도 희망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졸업을 미루거나, 해외 어학연수 또는 대학원 진학 등의 방법으로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젊은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청년 취업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Lee, 2017).

취업의 문제는 학교 밖의 문제만은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학업과 취업준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Correll, 2001; Hamersma, 2008; Chae & Kim, 2009; Nam, 2010). 특히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공에서는 대학생들을 출발점부터 취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졸업을 하기 전 취업을 하거나, 입학과 동

[†] Corresponding author: 오석태, stoh@wsu.ac.kr, 대전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시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인해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해 어학 공부는 물론이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교생활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전공과 관련된 교과 비교과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쌓아야 할 기술과 지식에 대한 학습 만족도가 저하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공과 관련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전공 분야에 취업 준비가 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전공 수업에 열중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진로에도 영향을 주어 오히려 자격증 취득이 학업적 효능감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Jang, 2008; Lee, Lee, & Lim, 2013; Lee, Lee, & Lim, 2014).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준비는 물론이고, 학교 수업 만족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각 전공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공별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외식조리전공을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격증취득의 정도와 자격증이 취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와 동시에 자격증 취득이 수업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격증(Certification)

자격증에 대한 정의는 필요에 따라 또는 개념에 의해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객관적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표식인 것만은 공통적인 것 같다. 위키백과에서는 자격증을 “Certification”이라 하며, “Certification refers to the confirmation of certain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person, or organization”, 즉 “대상 사람 또는 조직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어사전 역시 “자격증이란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로 설명하고 있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Lim & Oh, 2014).

이렇게 자격증을 통해서 사람 또는 조직의 특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후기부터 사람들의 대량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익명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전 도제적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던 시대의 인적 연결고리가 약화되면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표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식은 좀 더 발전하여 사회적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산업사회의 정책 제도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지면 산업인력에 대한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과 함께 개인에게는 자신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바탕을 만들어 가는 가치적 생애 계획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 및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격증 활용을 통해 기술 및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Leahy, Chan, & Saunders, 2003).

최근 들어 조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적게는 1~2개, 많게는 10개가 넘게 취득한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격증의 기본적인 기능은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기술 수준을 가능케 해주는 객관적인 척도로서의 역할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에서는 자격증을 많이 소지한 사람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과다할 정도로 많이 수집하는 데는 극심한 청년실업과 경쟁과 같은 취업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차별화 시키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는 통로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회적 현상에서 기인한 것 같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정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무려 1만 7,289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Oh, 2016).

조리사 자격증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64년 최초로 서울시청 위생과에서 274명에게 조리사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을 거쳐 현재에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명장 4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에 조리사 자격증 구조는 1987년 개정된 형식으로서 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제과제빵, 복어 등), 산업기사와 기능장(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에 전문분야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 및 조리전공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 현황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격증의 범위를 한정하였다(Min, 2005; Lim & Oh, 2014).

2. 수업만족도(Class Satisfaction)

만족에 대해서 일정한 척도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로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1980년대 기대성에 대한 불일치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나타낸 올리버(Oliver)의 만족도에 대한 정리이다(Oliver, 1996; Ameer, 2013). 그는 선

행인지와 만족결정 결과 모델(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 of satisfaction and decisions) 연구에서 만족도는 선행적으로 인지된 기대치를 얼마만큼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만족도가 결정되며, 이는 경영학 측면에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와 함께 충성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도 사용된다. 즉, 만족도는 어떠한 대상에 관하여 매우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많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이다(Zhou, 2016). 수업 만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설정한 주관적 기준이 마련되고 수업을 실시한 후, 그 기준에 대한 심리적 상태로서 기준보다 낮을 경우, 불만족으로 나타나면 반면 기준보다 높게 되면 만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업만족도란 기대에 대한 충족이나 미 충족이나에 의해서 나타나는 척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다(Jung, 2008; Kim, 2015). 교육인적자원부(2002)의 공교육 내실화 정책에 따라 수업 만족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업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대학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실시한 강의평가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Kim, 2012; Park, 2013; Park & Kim, 2014). 수업 만족도에는 수업 내용에 관한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주관하는 교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교수의 성격이나 태도, 지도 방법에 따라서 수업만족도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의 태도와 활동이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나타나 있다(Bean & Bradley, 1986; Reeve, 1994; Beerens, 2000; Choi, 2002; Jin, 2002; Johnson & Birkeland, 2003; Jung, 2008; Choi,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식조리전공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는 학생들이 기대했던 수업의 주관적인 척도에 따라 리커트 5점 척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업만족도와 실기수업만족도를 선정하여 하위척도를 구체화 하였다.

3. 취업준비(Readiness for Employment)

실업의 발생 요인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취업 의사를 기준으로 볼 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체의 수요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이 서로 공급과 수요를 맞추지 못한 미스매치(mismatch)에 의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원인으로서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해 취업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된 데서 기인하고, 이와 맞물려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이 지속되어 그 동안 축적된 유효인력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 인력 정체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1980년대와 1990년대 고학년이 되어서 하던 취업 준비가 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야말로 대학생활 전과정이 곧 취업준비를 하게 되면서 대학은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하게 되었다. 취업준비는 크게 대학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학생들 개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Park, 2004; Han, 2014).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적자본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가치를 투자함으로써 인적자본 시장에서 보상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미래 취업 시장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공 이외에 유사 또는 보완되는 또 다른 부전공이나 연계, 복수로 취득함으로써 다양성을 높이고, 학점관리, 인턴십, 현장학습 등을 통해 전공체험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Lee et al., 2013).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은 취업과 관련하여 단계적인 과정을 겪는데, 첫 번째 단계로는 자신의 현실을 무시하고 매우 환상적인 대상으로 접근하며,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게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은 물론이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국가자격증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취업률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Lee, Sohn, & Kwon, 2013). 한편, 자격증이 많은 학생들은 실용학문인 외식 및 조리 관련 학과에서 실습 수업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어 흥미를 잃게 됨과 동시에, 수업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중 또는 그 외 시간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준비는 자격증 취득 노력, 컴퓨터활용능력, 외국어, 경진대회, 현장체험, 사회봉사과 리더

십 함양 등 6개 항목을 설정하게 되었다(Park & Ban, 2006; Jung & Jung, 2014, Hyun, 2014; Choi, 2015; Ji & Han, 2016).

Ⅲ. 연구방법

1. 설문개발 및 배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Lee(2005)의 설문지를, 수업만족도와 관련하여서는 Kim과 Park(2001)의 설문지를 표본으로 하여 외식조리전문 학생들의 현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대전권 W대학 외식조리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차 1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파일럿 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일부 모호성이 있는 질문과 내용을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구성은 취업준비 분야로서 자격증의 취득 여부, 자격증의 취업과 연관성, 취업준비상태 등 12개 항목과 수업만족도에 관한 질문 23개 항목과 함께 인구통계학적 질문 5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완성된 설문지는 2016년 10월에서 12월 사이 3개월 동안 기취업 4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에서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수거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여 응답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400부 설문지 중 미완성 설문지와 부정확하게 표기된 것과 불성실하게 표기된 것들을 제외하고 319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2. 가설설정

Choi(2015)는 그의 연구에서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자격증의 수에 따라서도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는 것도 취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Park (2004)은 자격증은 훈련보다 취업준비에 있어서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격증이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확률이 높아 보인다. Ji와 Han(2016)은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되어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인해 자기 전공에 대한 열정이 상실되게 되어, 실망감과 함께 이직을 고민하거나,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Lee (2013)는 어렵고 힘든 노동과 창의성은 열정이 없이는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최근에 와서 학교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로탐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법, 취업캠프를 비롯하여 선후배와의 멘토, 멘티 연결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본 결과,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 수업만족도, 취업준비, 열정이라는 변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다.

가설 1.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수업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인 수업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실기 수업 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외식조리전공 대학생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취업 준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공에 대한 열정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열정변화의 차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취업준비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두 연구가설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Fig. 1과 같다.

3. 통계분석 방법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18.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각 문항별 빈도 및 백분율, 만족도 등 문항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를 계산하여 해당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를 검정하였고,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들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하위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하여, 대상자의 성별, 학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정과 one-way ANOVA과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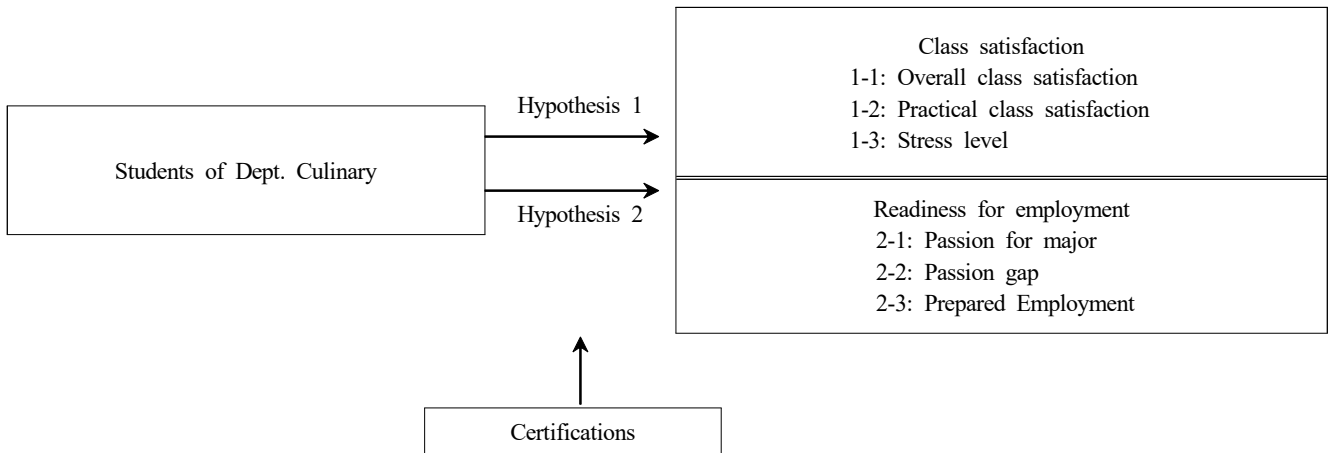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IV.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결과를 보면(Table 1), 남자 216명(67.7%), 여자 103명(32.3%)이었고, 남자의 경우 군필이 133명으로 미필의 83명보다 조금 많았다. 학년은 4학년을 제외한 1학년(92명), 2학년(72명), 3학년(155명)으로 3학년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주지는 충청남북도가 총 117명으로 26.7%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지역은 큰 차이가 없었다. 졸업 고등학교 유형은, 조리관련 고등학교가 180명으로 절반을 넘고(56.4%), 인문계 고등학교가 약 40%이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일부(3.8%)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는, 20~24세가 215명으로 약 2/3 정도였으며, 25~29세가 95명(29.8%)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자격증과 관련된 문항들의 빈도를 보면(Table 2), 자격증 취득한 학생들이 217명으로 68%를 차지하였고, 미취득 학생들은 102명으로 32%를 차지하였다. 취득 자격증 개수를 보면, 3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81명(25.4%)으로 가장 많았고(자격증 소지자들), 평균적으로 2.8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와 분야(중복응답 허용)에서는 한식(45.5%), 중식(49.5%), 양식(42.0%) 3종류가 모두 40%를 넘었고, 그 외에는 위생사가 21.9%, 푸드스타일리스트가 12.9%로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문항의 기술통계

수업만족도 관련 문항들의 빈도분석 결과(Table 3), 대부분의 문항에 대하여 '보통이다'(28.2~43.6%)와 '그렇다'(19.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ded	Frequency	%
Gender	Male	216	67.7
	Female	103	32.3
Military	Unfinished	186	58.3
	Veteran	133	41.7
Grade	Freshman	92	28.8
	Sophomore	72	22.6
	Junior	155	48.6
A native high school	Culinary high school	180	56.4
	Scademic high school	127	39.8
	Vocational high school	12	3.8
Age	20~24	215	67.4
	25~29	95	29.8
	30~34	9	2.8
	Sum	319	100.0

~42.3%)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점은 '학과 수업이 미래 직업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충분한 설명과 시범을 보여준다', '수업시간을 통해 조리전공에 대한 성취감을 얻는다', '수업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문항이 3.50에서 3.61의 평균점수대를 보였고, '수업이 재미있고 유익하다'와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성실히 배운다' 문항이 각각 3.85와 3.95로 높은 평균점을 받았다. 반면에, '전공관련 수업시간이 전공을 익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는 3.38이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균점수로 응답을 했다.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qualification questions for job preparation

Divided		Frequency	%
Whether get the certifications	Y	217	68.0
	N	102	32.0
Number of certifications	One	28	8.8
	Two	60	18.8
	Three	81	25.4
	Four	43	13.5
	Over five	16	5.0
Types of certifications (duplicated answer)	Korean cuisine	145	45.5
	Chinese cuisine	158	49.5
	Western cuisine	134	42.0
	Japanese cuisine	28	8.8
	Baking and pastry	30	9.4
	Food stylist	41	12.9
	Food safety	70	21.9
	Baristar	11	3.4
	Others	6	1.9
	Sum	319	100.0

10점 척도로 응답을 받은 전공에 대한 열정(Table 4)은 전공시작 시점에서와 현재 시점 모두 8점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적으로는 전공시작 시점의 7.39에서 현재 시점의 7.61로 전반적으로 열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업준비정도의 경우(Table 5)는 ‘자격증 취득 준비 중’ 문항에 대해서 ‘보통이다’(39.8%)와 ‘그렇다’(35.7%)가 대다수를 차지하여서 3.37의 평균점수를 보인 반면, ‘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노력’(평균 3.67)이나 ‘전공 관련 현장 체험’(평균 3.83)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받았다. 또한 ‘컴퓨터 활용능력 노력’의 평균이 3.36인데 비교하여 ‘외국어 능력 노력’의 평균은 3.6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 봉사, 리더십 능력 노력’도 3.76으로 높은 준비정도 평점을 보였다.

실기수업만족도(Table 6) 관련 문항은 일반적인 수업만족도에 비해서는 높은 평점을 보였다(3.58~4.17). 특히 ‘실습 담당 교수님이 전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평균 4.13)와 ‘교수님이 학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평균 4.17), ‘조리 관련 새로운 기술 습득에 높은 도움을 준다’(평균 4.09) 문항은 매우 높은 평균점을 받았다. 반면에, 일반수업만족도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대부분 10%였던 것에 비하여 실기수업만족도의 ‘학생존중’(그렇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class satisfaction

Question for class satisfaction	1	2	3	4.	5	Average (standard devia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Strongly agree	
The lessons that are currently being taught in the department are very helpful for future occupations.	7 2.2%	61 19.1%	90 28.2%	86 27.0%	75 23.5%	3.50 (1.113)
Professor (lecturer) gives enough explanation and demonstration in class.	7 2.2%	53 16.6%	98 30.7%	89 27.9%	72 22.6%	3.52 (1.081)
I get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the cooking major through the class.	0 0.0%	44 13.8%	96 30.1%	135 42.3%	44 13.8%	3.56 (0.895)
For me, class is very interesting and informative.	0 0.0%	15 4.7%	94 29.5%	135 42.3%	75 23.5%	3.85 (0.835)
I attend all classes and learn faithfully.	1 0.3%	5 1.6%	103 32.3%	109 34.2%	101 31.7%	3.95 (0.855)
I think it is enough to master the major in my major in school.	9 2.8%	47 14.7%	139 43.6%	61 19.1%	63 19.7%	3.38 (1.048)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the class.	0 0.0%	37 11.6%	121 37.9%	97 30.4%	61 19.1%	3.61 (0.975)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passion for culinary major

The moment	1 min	2	3	4	5	6	7	8	9	10 max	Average (standard deviation)
Beginning time	0 0.0%	2 0.6%	8 2.5%	8 2.5%	15 4.7%	43 13.5%	73 22.9%	91 28.5%	66 20.7%	13 4.1%	7.39 (1.564)
Present time	0 0.0%	0 0.0%	5 1.6%	14 4.4%	5 1.6%	25 7.8%	85 26.6%	91 28.5%	80 25.1%	14 4.4%	7.61 (1.449)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preparation for employment

Level of preparation for employment	1	2	3	4.	5	Average (standard devia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Strongly agree	
Preparing to acquire a related certificate.	7 2.2%	41 12.9%	127 39.8%	114 35.7%	30 9.4%	3.37 (0.902)
Trying to improve my computer literacy skills.	10 3.1%	36 11.3%	148 46.4%	79 24.8%	46 14.4%	3.36 (0.967)
I am trying to improve my foreign language skills.	0 0.0%	18 5.6%	128 40.1%	128 40.1%	45 14.1%	3.63 (0.794)
I am trying to win a contest or competition.	4 1.3%	9 2.8%	110 34.5%	162 50.8%	34 10.7%	3.67 (0.754)
I am trying to do a lot of field experience related to my major.	3 0.9%	15 4.7%	74 23.2%	168 52.7%	59 18.5%	3.83 (0.814)
I am trying to improve my social service or leadership abilities.	4 1.3%	21 6.6%	87 27.3%	143 44.8%	64 20.1%	3.76 (0.891)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practical class

Practical class satisfaction question	1	2	3	4.	5	Average (standard devia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Strongly agree	
I consider the professor in charge of practice as a model to be imitated in the field.	1 0.3%	10 3.1%	106 33.2%	145 45.5%	57 17.9%	3.77 (0.785)
It stimulates the student to participate in the practice time.	0 0.0%	8 2.5%	100 31.3%	155 48.6%	56 17.6%	3.81 (0.745)
The professor in charge of practical training make you interested.	0 0.0%	10 3.1%	58 18.2%	130 40.8%	121 37.9%	4.13 (0.819)
The professor accepts students' requests positively.	0 0.0%	7 2.2%	64 20.1%	117 36.7%	131 41.1%	4.17 (0.821)
It is very helpful when try to acquire new skills in cooking.	0 0.0%	2 0.6%	71 22.3%	142 44.5%	104 32.6%	4.09 (0.753)

Table 6. Continued

Practical class satisfaction question	1	2	3	4.	5	Average (standard devia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Strongly agree	
The professor respects the students during the class.	0 0.0%	68 21.3%	86 27.0%	78 24.5%	87 27.3%	3.58 1.1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s is good during the practical classes	0 0.0%	65 20.4%	71 22.3%	80 25.1%	103 32.3%	3.69 1.127

지 않다 21.3%)와 ‘교수 학생 좋은 관계’(그렇지 않다 20.4%)로 높게 나온 것은 특이한 점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와 조리 관련 스트레스 관련 문항의 분석결과(Table 7), 조리재능과 수업과의 관련도를 묻는 1,2,3번 문항은 ‘보통이다’가 절반 정도로 (43.6~57.4%) 나오며, 평균도 3.24~3.38로 낮은 평균을 받았고, 조리 관련 스트레스 관련 문항들은 ‘그렇다’가 37.6~51.4%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평균도 3.53~3.87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도 ‘보통이다’가 50.8%로

가장 많이 나왔고, 평균도 3.59로 중간 정도로 나왔다.

3. 신뢰도/타당성 분석

수업만족도 7문항, 취업준비정도 6문항, 실기수업만족도 7문항,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 및 스트레스 8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Table 8), Cronbach 알파 값이 모두 0.8을 넘게 나와서 각 항목내의 내적 일치가 충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의 경우, 문항 들내에 하부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 대하여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tress

School satisfaction (a) & stress(b)	1	2	3	4.	5	Average (standard devia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Strongly agree	
I think that have talent in this major. (a)	2 0.6%	17 5.3%	183 57.4%	93 29.2%	24 7.5%	3.38 (0.729)
My talents and skills are well utilized in class. (a)	2 0.6%	23 7.2%	171 53.6%	108 33.9%	15 4.7%	3.35 (0.710)
I feel a lot of boredom when I been in the practical class. (b)	7 2.2%	49 15.4%	139 43.6%	109 34.2%	15 4.7%	3.24 (0.847)
I think it is difficult to work in the job of culinary. (b)	2 0.6%	47 14.7%	78 24.5%	164 51.4%	28 8.8%	3.53 (0.871)
The job environment of the cook is very dangerous. (b)	0 0.0%	32 10.0%	94 29.5%	148 46.4%	45 14.1%	3.65 (0.845)
I think I can get hurt or ill when I cook. (b)	3 0.9%	13 4.1%	91 28.5%	128 40.1%	84 26.3%	3.87 (0.884)
I am stressed by cooking lessons. (b)	3 0.9%	24 7.5%	105 32.9%	120 37.6%	67 21.0%	3.70 (0.916)
I am happy with my school life. (a)	3 0.9%	10 3.1%	162 50.8%	84 26.3%	60 18.8%	3.59 (0.860)

Table 8. Reliability analysis

Variations	Questions	Cronbach's α
Class satisfaction	7	0.917
Employment	6	0.833
Practical satisfaction	7	0.890
School life and stress	8	0.819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생활 만족과 스트레스에 관한 8 문항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한 결과(Table 9), 1~3번, 4~7번, 그리고 8번 문항이 묶여서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3번 문항은 ‘자신의 조리재능과 수업과의 관련도’(3번 문항은 역코딩 문항)로 요약될 수 있고, 4~7번 문항은 ‘조리 관련 스트레스’로 요약될 수 있었다. 8번 문항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들 요인들(8번 문항은 한 문항이므로 제외)의 신뢰도는 각각 0.858과 0.825로 해당 요인을 하나의 변수로 사용해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차이분석에서는 ‘수업만족도’, ‘취업준비정도’, ‘실기수업만족도’, ‘조리재능과 수업관련’, ‘조리 스트레스’, ‘학교생활만족도’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평균 수치를 이용하여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4. 상관관계분석

수업 만족도, 취업준비 정도, 실기수업 만족도, 조리수업과 재능관련, 조리 스트레스, 학교생활만족도, 열정에 대한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Table 10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10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p -value<0.05) 경우들이고, 음영으로 처리된 셀들은 그 중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들이다. 우선, 수업

Table 9.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tress

Scale	Question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Factor loading	Commonality	Eigenvalue	Distributed (%)	Cronbach's α
Class satisfaction	1	0.911	0.859	2.51	31.374	0.858
	2	0.931	0.881			
	3	0.727	0.668			
Stress	4	0.703	0.716	2.586	32.327	0.825
	5	0.862	0.791			
	6	0.851	0.736			
	7	0.674	0.672			
School life satisfaction	8	0.951	0.909	1.136	14.202	

Table 10. Correlation analysis on the variables

	1	2	3	4	5	6	7	8
1. Class satisfaction	1							
2. Prepared employment	.600**	1						
3. Practical class satisfaction	.650**	.586**	1					
4. Stress	.296**	.248**	.416**	1				
5. School life satisfaction	.016	.128*	.142*	.128*	1			
6. Beginning passion	.173**	.321**	.161**	.321**	-.223**	1		
7. Present passion	.058	.060	-.036	.060	.009	.431**	1	
8. The passion gap	-.116*	-.258**	-.189**	-.258**	.255**	-.584**	.481**	1

* $p < .05$, ** $p < .01$.

만족도, 취업준비정도, 실기수업만족도 모두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수업만족도, 취업준비정도, 실기수업만족도는 0.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조리 스트레스와 이들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도 양의 유의한 관계(0.248~0.416)가 있다고 나타난 점이다. 반면, 학교생활만족은 취업준비도와는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0.316)가 있었고,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각각 0.128, 0.142)가 나타났다.

열정은 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도와는 양의 상관관계(초기열정 각각 0.191, 0.317, 현재열정 각각 0.194, 0.373)를 보였고, 특히 초기열정은 실기수업만족도(0.173), 스트레스(0.16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교생활만족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223)로 나타났다. 초기열정과 현재 열정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0.431)가 나타났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실기수업만족도(-0.116), 조리스트레스(-0.189), 초기열정(-0.584)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교생활만족(0.255), 현재열정(0.481)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차이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1) 가설 1 검증: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수업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수업만족도와 스트레스 정도 차이에 대한 가설들(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적용한 결과(Table 11), 전반적인 수업만족도, 실기수업만족도, 스트레스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전반적인 수업만족도[가설 1-1]: 3.84(자격증 보유)>

Table 11. Comparison of the satisfac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certification status

Variable	Certification status	Mean	Standard deviation	<i>t</i> (p-value)
Overall class satisfaction	Y	3.84	0.754	7.624*** (0.000)
	N	3.16	0.694	
Practical class satisfaction	Y	4.04	0.654	5.734*** (0.000)
	N	3.58	0.678	
Stress level	Y	3.93	0.643	10.710*** (0.000)
	N	3.17	0.562	

* $p < .05$, ** $p < .01$, *** $p < .001$.

3.16, p -value<0.001; 실기수업만족도[가설 1-2]: 4.04(자격증 보유)>3.58, p -value<0.001; 스트레스[가설 1-3]: 3.93(자격증 보유)>3.17, p -value<0.001)으로 나타나서 가설이 채택되었다.

2) 가설 2 검증: 외식조리전공 대학생의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취업 준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취업준비도와 열정차이에 대한 가설들(가설 2-1, 가설 2-2, 가설 2-3)을 검증한 결과(Table 12), 학생들의 열정(가설 2-1)은 초기열정이나, 현재열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 -value>0.05). 또한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의 열정차이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 거라는 가설(2-2)은 소지한 학생들(평균 0.18)이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평균 0.38)보다 작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value>0.05). 반면에, 취업준비 정도에 대한 가설 2-3은, 자격증 소지한 학생들의 평균이 3.72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인 3.35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p -value<0.05)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소지한 자격증 개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13), 수업만족도, 취업준비정도, 실기수업만족도 모두 자격증 5개 이상을 소지한 학생들의 평균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들 만족도, 준비도가 자격증 개수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1개를 소지한 경우가 2개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아마도 첫 자격증을 소지/획득했을 때의 심리적 만족도가 두 번째 자격증을 소지/획득했을 때보다는 큰, 일종의 '문턱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12. Comparison of the prepared employment and passion according to the certificates status

Variable	Certification status	Mean	Standard deviation	<i>t</i> (p-value)
Beginning passion	Y	7.41	1.470	0.364 (0.716)
	N	7.34	1.762	
Present passion	Y	7.59	1.498	-0.715 (0.475)
	N	7.71	1.268	
Passion gap	Y	0.18	1.691	-1.023 (0.307)
	N	0.38	1.363	
Prepared employment	Y	3.72	0.654	5.415*** (0.000)
	N	3.35	0.508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3. Comparison of the satisfaction measures and the prepared employm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certificates

Variable	Certific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F (p-value)
Class satisfaction	0	3.17	0.708	14.643*** (0.000) 5≥1≥3,4>2,0
	1	4.01	0.561	
	2	3.50	0.720	
	3	3.92	0.809	
	4	3.70	0.771	
	5	4.31	0.398	
Prepared employment	0	3.39	0.512	11.757*** (0.000) 5>1,4,3≥2,0
	1	3.81	0.711	
	2	3.42	0.534	
	3	3.67	0.555	
	4	3.74	0.809	
	5	4.46	0.255	
Practical class satisfaction	0	3.55	0.648	14.643*** (0.000) 5>4,3,1>2,0
	1	4.04	0.608	
	2	3.69	0.596	
	3	4.10	0.702	
	4	4.14	0.554	
	5	4.66	0.433	
School life satisfaction	0	3.59	0.789	3.79*** (0.002) 4≥2≥0,3,1,5
	1	3.32	0.612	
	2	3.73	1.023	
	3	3.49	0.868	
	4	3.93	0.884	
	5	3.06	0.250	

* $p < .05$, ** $p < .01$, *** $p < .001$.

조리재능과 수업관련도와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자격증 4개를 소지한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비교에서도 나타났듯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보다 개수에 상관없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열정에 대한 자격증 소지 개수의 차이분석 결과(Fig. 2), 앞의 만족도/준비도와 유사한 형태, 즉 5개 자

격증의 열정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고, 자격증 1개 소지자의 열정이 2개나 3개 소지한 학생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초기열정과 현재열정간의 차이를 보는 열정변화의 경우, 자격증 개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그룹의 열정이 증가한 반면,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증 4개 소지자의 경우만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척도들의 인구통계학적 비교를 위하여 t -검정과 ANOVA를 적용한 결과가 Table 14와 Table 15이다. 연령대와 졸업고등학교 형태는 비슷한 그룹 크기를 만들기 위하여 각각 25세 미만과 25세 이상 그룹, 그리고 조리 관련 고등학교와 그 외 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 기타) 그룹으로 묶어서 비교하였다.

전공에 대한 열정은, 초기열정에서는 성별(남자: 7.68>여자: 6.77)과 졸업 고등학교 형태(조리 관련: 7.61>인문/실업계: 7.10), 그리고 연령대(25세 이상: 7.71>25세 미만: 7.2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현재열정에서는 연령대(25세 이상: 7.94>25세 미만: 7.46)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열정과 초기열정의 차이는 여자(0.71)가 남자(0.00)보다 높고, 인문/실업계(0.63)가 조리 관련(-0.08)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취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면서 학교 수업도 취업에 초점을 두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정부에서는 전문대학과 직업 전문학교를 대상으로 NCS 과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학 교육 전반에 걸쳐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을 이미 소지하고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와 대학 생활 중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학업에 충실하지 못해서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지거나, 결국 휴학이나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격증은 대학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자격증의 수를 변수로 하여 학교 생활 만족도와 취업준비도에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자격증 소지는 수업 만족도에 대한 영향에서는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와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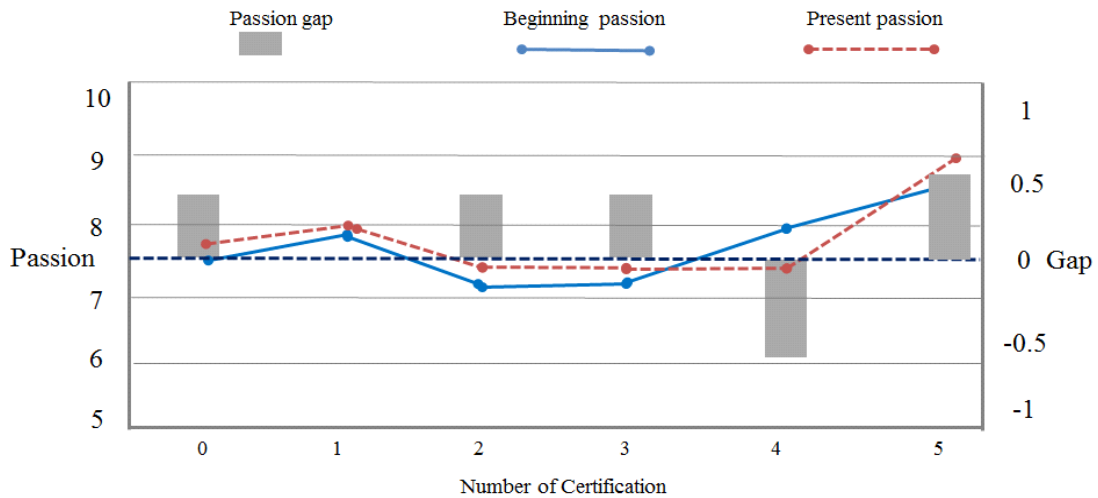


Fig. 2. Change in variables passion according to certifications.

Table 14. Comparison of the pass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ertificates

Scale	Certific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F (p-value)
Beginning passion	0	7.44	1.796	5.360*** (0.000) 5 > 4, 1, 0 ≥ 2, 3
	1	7.82	1.278	
	2	6.98	1.546	
	3	6.96	1.167	
	4	7.95	1.495	
Present passion	0	7.80	1.276	4.664*** (0.000) 5 > 나머지
	1	7.93	1.184	
	2	7.37	1.636	
	3	7.32	1.171	
	4	7.42	1.979	
Passion gap	0	0.36	1.410	2.453* (0.034)
	1	0.11	1.548	
	2	0.38	1.563	
	3	0.36	1.469	
	4	-0.53	2.218	
	5	0.50	1.317	

* p<.05, ** p<.01, *** p<.001.

스트레스를 검정하기 위하여 t-검정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자격증이 실기수업만족도와 전반적인 수업만족도에 4.04

>3.58, p-value<0.001; 3.84>3.16, p-value<0.001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won(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전공 자격증은 학교 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격증 자체가 기능에 대한 인증에 일환으로써 실기수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생활 스트레스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증 소지한 학생들(3.93)이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3.17)에 비하여 유의수준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본 연구의 가설은 채택되었지만,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결과로서,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과 병행하는데 오는 스트레스로 추측할 수 있겠고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셋째, 외식조리전공 대학생의 자격증 소지가 취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은 처음에 가진 열정과 현재 열정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을 입학할 때 자신이 가졌던 전공에 대한 열정이 1~2년 정도 지나면서 강도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지한 상태에서 입학을 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열정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자격증이 주는 심리적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 준비 정도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이 3.72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인 3.35보다 유의(p-value<0.05)한 수준에서 나타남으로써 결국 외식조리전공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자격증이 취업 준비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하게 자격증 소지 여부에서 더 나아가 자격증 개수에 따른 결과에서 볼 때, 자격증이 많을수록 전공에 대한 열정이 높은 것에 대한 결과는 당연하겠지만, 자격증이 전공

Table 15. Demographic comparison of passion gap

Divided		n	Mean	Standard deviation	t / F (p-value)
Gender	Male	216	0.00	1.525	-3.621*** (0.000)
	Female	103	0.71	1.684	
Military	N	83	-0.18	1.782	-1.379 (0.169)
	Y	133	0.11	1.335	
Grade	Freshman	92	0.14	1.635	0.439 (0.645)
	Sophomore	72	0.38	1.740	
	Junior	155	0.21	1.537	
High school	Culinary	180	-0.08	1.573	-3.958*** (0.000)
	Ac/Vo	139	0.63	1.576	
Age	Under 25	215	0.23	1.877	-0.019 (0.985)
	Over 25	104	0.23	0.827	
Sum		319	0.23	1.610	

* $p < .05$, ** $p < .01$, *** $p < .001$.

에 대한 열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자격증 개수의 차이분석 결과, 수업 만족과 취업 준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5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의 열정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한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좀 더 깊이와 넓은 범위로 지식을 축적하면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열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그룹의 열정이 증가한 반면, 자격증 4개 소지자의 경우만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변수를 정리하여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인구통계학적인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별로 볼 때, 이러한 요인들이 수업만족도에 영향은 매우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정에 있어서는 조리 관련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고등학교부터 전공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지속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자격증이 외식조리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수업만족도와 취업 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병행하여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있어 많은 압박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외식조리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 취업지원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대학생활 중에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비교과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내 취업시장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학생들은 자신의 취업 준비에 대해서 자격증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학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외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핵심 자격증을 3개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격증 4개와 5개 사이에서 만족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해 볼 때 자격증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기 보다는 전공 관련 3개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으로, 필요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 생활이 소홀해지는 것과 함께 오히려 전공에 대한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셋째, 비 조리 관련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에 대한 열정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공

관련 열정이 단시간에 높아질 수는 없겠지만,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대학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리 관련 고등학교 졸업생과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학생들에 대한 차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 생활 중 학생들이 느끼는 기쁨 및 경험에 대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격증이라는 변수를 수업만족도와 취업 준비로 한정하여 다른 변수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를 살펴볼데 한계가 있어,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했다. 현재 취업 시장에서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의 취업 프로그램과 외식조리 전공학생들의 취업 분야에 있어서 고용형태, 근무 연수, 취업 성공률을 비롯한 학생들의 사회진입과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meer, I. A. (2013). Satisfaction-A behavioral perspective on consumer: Review, criticism and contrib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Studies in Management*, 3(1), 75-82.
- Beerens, D. R. (2000). *Evaluating teachers for professional growth: Creating a culture a motivation and learning*. Thousand Oaks Corwin Press. California.
- Bean, J. P., & Bradley, R. K. (1986). Untangling of satisfaction-performance relationship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7(4), 393-412.
- Chae, K. C., & Kim, T. K. (2009).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college) graduates yout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28(2), 89-107.
- Choi, J. H. (2013).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eacher leadership on student achievement in the elementary school based on hierarchical linear model*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 University.
- Choi, J. K. (2002). *The research of the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and satisfaction on the general physical education program* (Master's thesis). Yensei University.
- Choi, S. M. (2015). The effect on employment of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in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556-2563.
- Correll, S. J. (2001). Gender and the career choice process: The role of biased self-assessments 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691-1730.
- Hamersma, S. (2008). The effects of an employer subsidy on employment outcomes: A study of the work opportunity and welfare to work tax credit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7(3), 498-520.
- Han, Y. J.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 Hyun, D. H. (2014). *Satisfaction analysis for university student job preparation*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 Jang, K. Y. (2008). *Determinants of the first job attainment for college graduates in Korea: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preparedness*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Ji, K. U., & Han, J. Y. (2016).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6), 33-41.
- Jin, Y. S. (2002). *A study of expectation and perception of students on dance educators quality: Focused on secondary art school*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 Johnson, S. M., & Birkeland, S. E. (2003). Pursuing a "sense of success": New teachers explain their career decis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0(3), 581-617.
- Jung, O. J. (2008). *The relationship of teacher efficacy, teaching effectiveness and cours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 Jung, S. B., & Jung, H. M. (2014). A study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cost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 for Job-seeking.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Review*, 33(4), 1-19.
- Jung, S. H. (2008).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accounting classes at commercial high schools*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 Kim, A. Y., & Park, I. Y.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9(1), 95-123.
- Kim, D. K. (2015). A study on the class of education that builds students' character through films-classes at the university of liberal ar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74, 1529-1533.
- Kim, Y. 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er-*

- sonality traits and the instructional satisfaction level of the students(Big Five) (Doctoral dissertation). Daejin University.
- Kim, Y. S. (2012). Joblessness among the highly educated youth in Korea: The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4(3), 67-95.
- Kim, Y. S. (2015, March). February unemployment rate of 11% exceeded ... the best in 15 years and a half. *Korea Times*. Retrieved from <http://www.hankookilbo.com/v/e7881aebc79b4ca69f1e51cfd782b3f5>
- Kwon, G. M. (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ounting certificate over the employment opportunity*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 Leahy, M. J., Chan, F. & Saunders, J. L. (2003). Job functions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certified rehabilitation counselors in the 21st centur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6(2), 66-81.
- Lee, H. J. (2005). *A study on the certificate recognition and career guidance for computer department' students in the vocational high school*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 Lee, J. C. (2013).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career education and employment career program.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Spring Symposium*, 1, 22-103.
- Lee, S. G., Sohn, K. O., & Kwon, J. K. (2013). Determinants of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retention for junior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5(1), 25-49.
- Lee, Y. M., Lee, S. Y., & Lim, J. Y. (2013). An analysis of art, music, sports and dance graduates' school-to-work transition prepar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Korea Social Sciences*, 52(1), 1-28.
- Lee, Y. M., Lee, S. Y., & Lim, J. Y. (2014).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llege graduates' entering of preferred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ir job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53(1), 337-374.
- Lim, H. W., & Oh, S. T. (2014). A study on gender and certification with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iversity culinary art student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7(3), 199-216.
- Min, K. H. (200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western cook's skill licence system.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8(1), 7-25.
- Nam, J. Y.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work factors and preparation of employ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2(4), 353-375.
- Lee, J. W. (2017). Budget analysis for jobs. *News2day*. Retrieved from http://www.news2day.co.kr/n_news/section/?code=20160620193706_3866
- Oh, S. T. (2016).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awareness of culinary student drinking behavior and school life satisfaction/stress.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2(3), 139-154.
- Oliver, R. L. (1996).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consumer*. New York : Printce Hill.
- Park, S. J. (2013). *Study about satisfaction of students of beauty specialized high schools with the practical skill clas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Park, S. J. (2004).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acquisition of the youth on their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Park, S. J., & Ban, J. H. (2006). Effects of pre-employment efforts of the college graduate yout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y Society*, 29(3), 29-50.
- Park, S. J., & Kim, A. J. (2014). Study about satisfaction of students of beauty specialized high schools with the practical skill cla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sthetics & Cosmeceutics*, 9(4), 243-250.
- Park, S. O (2013). *A study on how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affects the rise i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 Reeve, M. M. (199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 15-20.
- Zhou, H. (2016). Empirical study on university curriculum satisfaction of university graduates.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4(1), 132-137.

2017년 04월 03일 접수
 2017년 04월 23일 1차 논문수정
 2017년 04월 25일 논문 게재확정